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운파선사 '靑靑赤赤'

순조 18년(1818) 청해 장자리(淸海長者里: 지금의 완도군 장좌리)에서 출생한 운파선사는, 14세에 해남 두륜산 영월 장로(永哲長老)문하에 나아가 삭발염의하였다. 지허 선사(知虛禪師)에게 계를 받았으며 영철 장로께서 일찍 입학함에 따라 조사(祖師)인 양성(養性) 노선사를 의지하여 공부하였다.

조사 스님께서 선사에게 "나는 이제 늙어서 너를 가르칠 수 없구나. 대둔사 진불암(眞佛庵)에 주석하고 계신 철선 선사(鐵船禪師)를 찾아가 법을 구하여라"고 하셨다.

당시 철선 선사는 수룡(袖龍) 선사의 법맥을 계승한 당대 최고의 명강백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선사는 진불암으로 철선 선사를 찾아가 법을 구하여 수참(修參)하였으며 사집(四集)을 통해 선교(禪敎)의 연원을 찾아 깊이 탐구하였다. 다시 북암(北庵)으로 문암(問庵) 강백을 찾아가 사교(四敎) 공부를 통해 열고 깊은 단계별 수행의 과정에 대해

문산 깊은 골짜기를 찾아 토굴을 마련하고 풀잎으로 옷과 이불을 하고 습일을 먹으면서 정진하기를 수년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흩어져 흘러가다가 다시 모이고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서 확연대오(廓然大悟)하였다.

청청적적(靑靑赤赤): 푸르다고 생각하며 더욱 푸르고, 붉다고 생각하며 더욱 붉다. 깨달음의 깊은 마음

靑來藍表靑(靑래람표청) 綠來靑表綠(갈래천표강)

푸른 물감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욱 푸르고,

붉은 물감이 쪽두서니에서 나왔으나 쪽두서니보다 더욱 붉다.

이것이 선사의 깨달음이다. 선사께서 깨치고 보니 깨달음이 더욱 깊다는 뜻이며, 깨달음에는 그 끝이 없다는 뜻이다.

선사께서 우리 중생세계에 던져 준

깨치고 보니 깨달음 더욱 깊고

깨달음에는 그 끝이 없다

깊이 배웠다. 또한 선사는 삼장(三藏)의 오묘한 법리(法理)를 공부하였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貪), 노여움(瞋), 어리석음(癡)을 타파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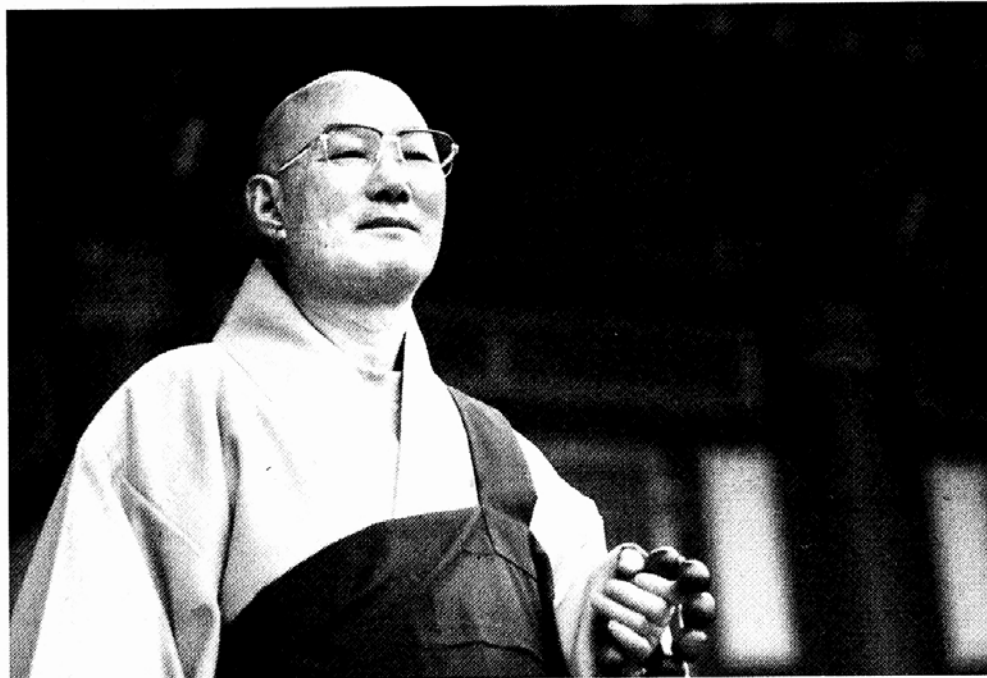
그동안 선사께서 공부한 것을 본체계(本體界)와 현상계(現象界)가 장애하지 않고 서로 융합한다(理事無礙)는 세속적 진리관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았다.

만약 산중에서 종자기(鍾子期)를 만났다면 어찌 누런 나뭇잎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왔겠는가(峯也山中逢峯將黃葉下山下: 종자기는 중국 고대인으로 친구 백아(伯牙)의 거문고 소리를 잘 알아들었다. 그가 먼저 죽자 백아는 지을(知音)이 없다고 거문고 줄을 끊어버렸다. 우는 아이에게 누런 나뭇잎을 주며 돈이라고 하여 울음을 그치게 했다는 뜻으로 누런 나뭇잎은 방편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뜻이다. 간명 직절한 선법(禪法)을 통해 존재의 실상(實相)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르고 경화 공부에 전념했음을 비유한 것이다)라는 격(格)이었음을 깨달은 선사는 두

선할(禪)은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자비(慈悲)를 맺음과, 번뇌망상의 산 앞에서 지혜(智慧)를 등불로 삼아 현상계를 원융무애(圓融無礙): 번뇌가 곧 보리요, 중생이 곧 본각(本覺)이며, 사바(娑婆)가 곧 적광(寂光)이다. 일체의 사리(事理)가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는 뜻), 사사무애(事事無礙: 현상계의 잡다한 일이 서로 융합하여 장애(障礙)하는 일이 없는 것 일체 사물이 서로 상즉무애한 것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곡(歌曲: 사악하고 간사한 말)을 하면 지옥의 바다에 떨어져 수억 겁을 지나도록 그 업장을 멸할 수 없다고 설교하였다. 또한 선사께서는 범음(梵音)에 능하여 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고 한다. 오늘의 범음 범패는 선사의 가르침으로 하여 이어져 오고 있다.

선사께서는 고종 12년(1875) 세수 58세 법랍 41세로 입적하였다. 선사의 법명은 익화(逸化), 법호는 운파(雲坡), 속성은 문씨(文氏)이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지혜스님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마음안에서 깨달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심 자체가 부처자리이니...”



가까이서 본 큰스님

지혜스님 (밀양 대법사 조실)

선이 세상의 화두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입심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선을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말한다. 막연히 '갑히 근접하지 못할 영역'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백화점 진열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품처럼 돼 버렸다. 선을 이 정도 사람들이 친숙하게 만들어 놓은 전문가들간의 공작을 어찌 가릴 수 있으리라는, 그 덕분에 선의 진면목은 온데 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선이 눈에 보이는 것인가. 만질 수는 있겠는가. 평생 선방에 틀어박혀 있어도 세 모습을 알기 어려운데 선은 무슨 놈의 선. 해가 돌아 하루 낮이 밝아지고, 밤에는 달이 뜨니 세상이 밝은데 또 뭐가 있겠노 말이다.”

60년 동안 오로지 참선수행에 전념해 온 경남 밀양 대법사 조실 지혜(智慧)스님. 평생 수행정진해 온 스님 말씀의 깊이를 짐작이나 해보자고 더듬고 있는 사이에, 대뜸 “선이 무엇이나?”고 물으신다. 선이 선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무지렁이가 답을

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참묵' 외에 달리 또 무엇이 있을까.

선이란 자각이요 감각이며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해 두자.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자, 바로 이 순간의 움직임이라고 하자. 고요하고 정체를 알 수 없고 아주 미묘하고 신비적이라는 통념은 일단 버리자.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 몸과 마음과 정신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것이라면 너무 평범한 답일까. 한발 더 나아가 오고 가는 것을 막지 않는 것. 온데도 없고 간데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해도 좋은 걸까.

“이뭐꼬가 뭐꼬?” “오도(悟道)는 뭐꼬?” “화두는 뭐꼬?”

간격을 두지 않고 날아드는 스님의 질문. 하지만 이런 물음의 답이 무엇일까 고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무리 돌아봐도 제 자리인 것을,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고 했는가.

“부처님 경계에 간다는 것이지. 그 생각 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 수행자고,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면 그게 선이고, 광명천

지아. 사람들은 계와 정과 율과 선을 구분 지어서 말하지만 한마디로 제행무상(諸行無常)이야. 하심하면 일체부처가 다 안에 있는 게지. 생사열반을 초월한 사람을 보았나. 이뤄꼬나 시심마나 가부좌나 아무리 화두를 들고 우왕좌왕 해봐야 생사 열반도 초월하지 못한 중이 무엇을 말하겠는가.”

답을 들었지만 답은 없었다. 들어도 들은 게 없게 된 셈이다. 흔히들 말한다. 잠으려는 생각 없이 자는 것. 행하지 않으며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래서 선은 아주 단

순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주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니, 선이란 또 흔히 말하는 '마음'인 것인가.

“일체가 심즉불(心卽佛)이고 불즉심(佛卽心)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지. 그러니 모두가 선인 게지, 선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마음은 본래 내외중간(內外中間)이 없고, 있는 곳도, 있지 않은 곳도 없다. 우리가 마음 마음 하지만 마음이란 참으로 믿기 어렵다. 땅은 형상이 있어서 견고하지만 마음은 본래 모양이 없고 바탕이 없는 것이다. 바탕이 없고 모양이 없으니 거기에 무슨 결집이 있겠는가.”

비가 오기 시작했다. 묘사처 마루에 걸터앉아 말씀하시던 지혜스님의 얼굴에 집중했던 시선이 자연스레 앞마당으로 옮겨졌다. 보기에 또 시원하고 깔끔한 대웅전과 보광전이 신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곳 대법사의 원래 이름은 표충사였다. 조선조 임진왜란 때 선조임금이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사명대사를 기리는 뜻에서 표충사

수행하는 까닭은 부처님 세상 바로알고 정법 따라 살기위해

를 지어 하사한 절이다. 지혜스님이 20년간 제방 선방을 돌아다니다 69년부터 이곳에 머무르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사명대사의 뜻을 잇겠다는 원력에서다. 그래서 사찰 이름을 대법사로 바꾸고 사찰 중수를 시작해 3년 전에 불사를 완공했다. 스님은 대법사를 사명대사의 혼을 잇고 불자들이 불자다운 도리 네 가지를 배우는 도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요구 결의문

- 정부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 공사를 즉각 중지하라

- 다음 -

우리 전국 24교구 본사 주지 일동은 북한산국립공원지역이면서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지역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지역에는 부처님처럼 살고자 하는 스님들이 천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행하고 있는 청정수행도량으로 종교, 문화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이러한 수행사찰의 경내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건설된다는 것은 불교수행환경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곳인데도 현 정부는 “환경보전 중심정책”이라는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일삼는 - 국립공원지역이면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 도로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불자대중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 및 수도권 이천만 시민의 녹색허파이다. 북한산관통도로가 건설되면 하루 14만대 이상의 차량이 매연을 내뿜어 녹색허파가 아닌 매연공장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자연환경이 보존되지 않는 곳에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

이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 조계종은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를 중단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처사는 현 정부가 이천만 불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전국 24개 교구본사주지들은 강력한 의지를 묶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천명한다.

첫째,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전통사찰을 파괴하는 관통도로 건설공사를 즉각 중지하라.

둘째, 사찰의 수행환경을 침해하지 말라. 사찰에서 볼 수 미터에서 수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사찰의 수행환경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셋째,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보다는 의정부외곽으로 우회하라. 북한산국립공원과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통과하는 것보다 의정부외곽으로 우회하면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지키면서 도로의 기능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다.

넷째, 2000만 불자 대중은 부처님의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해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의 파괴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업보로 되돌아온다는 신념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을 살리는 관통도로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불기 2546(2002)년 1월 22일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연합회